

## 전통의 의미와 가치관 교육의 방향\*

조 난 심\*\*

- I. 가치관의 혼란
- II. 학교교육의 문제
- III. 전통의 의미
- IV. 전통의 맥락과 이야기적 틀
- V. 교육에의 적용

### I. 가치관의 혼란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무규범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규칙들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가치 의식과 방향 의식이 결핍된 청소년들이 많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은 개인적인 심성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우리 사회와 학교 교육의 상황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개방화, 자율화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원 대다수가 공감하

는 사회 발전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의 추구는 많은 부작용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념들은 주로 서구적인 가치관에 뿌리를 둔 것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념들의 강조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소홀히 하게 했다. 더욱이 근대화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므로 타파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는 점차 상실되어 가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전통적 가치의 기반을 잃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적인 가치를 우리의 체질에 내면화시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도 한계를 보이는 양면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차 가치관의 혼란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처럼 해방 이후 서구적인 이념과 가치의 추

\* 이 논문은 '1992년도 KEDI 학술연구 용역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던 "전통 단절 극복을 위한 가치관 교육 모형"을 일부 수정한 것임.

\*\*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구로 인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가 많은 부분 상실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실제에는 전통적 가치가 그 토대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뿌리가 되는 것들, 예전대, 원초적인 인간관계 양상이라든가 인생의 실질적인 목표, 기본적인 가치 선택의 준거들은 쉽게 변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기도 어렵다. 그것들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 보일 수는 있으나, 그 근본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 점은 우리가 지난 몇 십년간 서구적인 가치들 예컨대, 민주시민적인 태도들을 부단히 강조해 왔으나 그 성과가 크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우리의 전통적 규범 문화 즉,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sup>1)</sup> 이 연구들은 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통적 규범 문화 곧 전통적 가치관의 실질적인 '내용'을 밝혀보려는 연구들이었다. 이 연구들이 대체로 합의하고 있는 전통적인 한국 규범 문화의 특징으로는 첫째,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유래된 '염치 의식'에 바탕을 둔 규범 문화(이에 대해 강신표는 염치나 체면을 지키려는 나머지 인간 관계가 연극/의례성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sup>2)</sup>) 둘째, 인간 관계를 서열적, 위계적으로 규정하는 것, 셋째, 집단주의적 성격을 들고 있다. 이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규범 문화의 특징은 오늘날에도 면면히 흐르고 있어, 우리의 일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규범 문화의 특징들은 근대 이후 우리가 수용해온 서구의 규범적 문화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 갈등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상으로 드러난다.<sup>3)</sup> 첫째, 권위주의적 규범과 평등주의적 규범 간의 갈등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인간 관계는 서열성이 그 주된 특징이었다. 반면에 서구의 규범 문화는 개인들 간의 평등한 인간 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평등주의가 그 주된 특징이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인간 관계 규범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둘째, 집단주의적 규범과 개인주의적 규범 간의 갈등이다. 이것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집단주의적 규범과 서구의 개인주의적 규범이 혼재함으로써 빚어내는 갈등이다. 셋째, 전통주의적 규범과 합리주의적 규범 간의 갈등이다.

이와같은 전통적인 규범 문화와 서구적인 규범 문화 간의 갈등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왜곡되고 과도적인 적응 양식'이 생겨나게 되어 사회의 도덕적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곧 갑작스러운 전통의 단절과 새로운 합리주의적 행위 양식의 미정형화라는 규범적, 윤리적 공백 상태를 틈타서 '便法主義'라는 왜곡된 적응 양식이 활개를 치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인간 행동의 두 차원 즉, 實行類型 *patterns of behavior* 과 規範類型 *pat-*

-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1980), 전통적 가치관과 새 가치관의 정립 이라든가 미원문화재단(편)(1980), 문화 전통과 사회 발전 등이 그 예이다.
- 2) 강신표(1986), "전통 가치와 현대 가치의 갈등 해소의 문제", 한국교육개발원(편), 도덕과 교육의 문제와 전망-제5차 초·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세미나 보고, 연구 자료, RM 86-5, pp. 35~54.
- 3) 임희섭(1991), "문화 전통과 생활 문화", 미원문화재단(편), 전개서, pp. 343~365참조.

terns for behavior 을 구분하고 있다. 곧 한 사회의 가치 문화는 실제적 차원과 이상적 차원으로 대별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이 두 차원의 간극과 불일치의 정도에 따라 한 사회의 도덕 상황에 대한 안정성과 타락의 정도를 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둘 간의 간극이 한계치 또는 역치에 다다를 때 그 사회는 붕괴된다고 본다.<sup>4)</sup>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실행 유형과 규범 유형 간의 간극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곧 비동시적인 가치들이 동시에 혼재하고 있고, 서로 모순과 갈등을 일으키는 속에서 개인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삶을 이끌어 가는 규범 간에 큰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곧 자신의 삶을 규율할 일관되고 통합적인 가치 체계를 갖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 II. 학교 교육의 문제

이같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혼란 또는 규범 문화의 실행 유형과 규범 유형 간의 커다란 간극은 상당 부분 우리 학교 교육 내부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해방 이후 우리의 학교 교육이 우리 자신의 가치관의 토대인 ‘전통의 문제’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곧 우리의 전통 단절에 학교 교육이 한 몫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의 교육 제도와 활동은 전통과 단절된 상태에서 서구적인 것, 그것도 일제에 의해서 재구성된

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원리와 결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곧 학교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실제 생활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의 원리 간에 괴리가 커져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가치관을 혼란시켜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가치관 교육은 그것이 속한 사회의 전통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전통의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경험을 교육적 관심의 대상에서 도외시하거나 경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을 빈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인간을 실제로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구체적인 문화 체제에서 분리시키고 오직 ‘추상적인 개인’으로서만 생활하기를 강요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sup>6)</sup> 이제까지 우리의 교육에서 전통의 문제가 다루어져 온 것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우리의 전통을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타파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해방 이후 현대적인 교육과 교육학의 선구자들이라 할 수 있는 교육학자들이 당시에 자신의 교육관을 피력한 글들을 보면 생생히 표현되어 있다.

“封建의 遺習’, ‘惰性’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식된 우리의 전통은 새로운 학교 교육을 통

4) 전경수(1986), “전통 가치와 현대 가치의 갈등 해소의 문제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개발원(편), 상계서, pp. 53~57.

5) 사실 공식적 교육에서 우리의 전통이 말살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 때 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교육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었던 해방 이후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6) 이돈희(1991), “문화 전통과 교육 문화”, 미원문화재단(편), 전계서, p. 333.

7) 예컨대, 오천석(1947)의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 광명 출판사 이리든가, 정범모(1956)의 향변의 장, 풍곡 학원 등을 보라.

해 타파되고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는 이같은 전통의 부정적인 측면들만 타파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우리 전통 전반을 경시하고 단절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했다.

이같은 교육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전반적으로 겪은 ‘민족적 자아’ 혹은 ‘민족적 주체성’의 상실이라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 한 때, ‘국적있는 교육’ 또는 ‘주체성 있는 교육’ 등의 슬로건이 호소력을 갖기도 했다. 특히 오천석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초창기 자신의 교육관이 전통의 문제를 경시했음을 인정하고, 민족적 전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교육관을 제시하고자 했다.<sup>8)</sup> 그러나 그는 전통의 문제를 교육에서 중시해야 한다는 의지는 표명했으나 그 문제를 다룬만한 적절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서구적인 민주 교육의 이념을 다시금 반복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교육에서 전통을 다루는 또다른 입장은 ‘우리의 전통’이 갖는 가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 보존하고 전승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을 긍정적으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전자와 대조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 입장은 교육에서 전통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 곧 우리의 전통을 박물관에 보존된 문화재와 같은 수준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여, 한 때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꽃 피웠던 문화를 변함없이 그 자체로 간직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통의 어떤 측면은 이같은 방식으로 보존되고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 말하는 전통은 우리 가치관의 기저를 이

루는 삶의 원리인 전통 곧 ‘살아있는 전통’과는 다르다. 그렇게 파악된 전통은 현재 우리의 삶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에서 전통을 이 입장과 같이 다루는 것은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전통을 올바르게 다룸으로써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는 교육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달리 말하여 교육에서 전통을 적절히 다루기 위하여 어떤 점들을 검토해야 하는가?

먼저, 교육과 관련하여 ‘전통의 개념’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재개념화할 것이 요구된다. 전통은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도 아니고, 실생활과 분리되어 박물관 진열장 속에 갇혀 있어야 할 것도 아니다. 이 논문에서 개념화하고자 하는 전통이란 간단히 말해, 우리 일상 생활의 실천 양식 *practices* 속에 녹아 있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암암리에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우리 삶의 토대가 되고 價値觀의 根幹을 形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살아있는 전통’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양상을 나타내면서도, 그 본질은 유지되는 그런 것이다. 이러한 살아있는 전통의 개념을 명료화 해보는 것이 교육에서 전통을 올바르게 다루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을 통해 가르치려는 가치와 규범 특히, 개인의 통합된 가치 체계가 이러한 ‘살아있는 전통’과 어떠한 논리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관련은 가치 혹은 규범이 충실하게 이해되려면 한 개인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전통의 맥락 속에 위치 지워질 때임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검토의 과정은 동시에 전통적인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접근 방법에 대한 시사도

8) 오천석(1963), 민족 중흥과 교육, 광명 출판사, 참조.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에서 이제까지 전통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 문제가 많다. 곧 전통적인 가치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은 사상된 채 탈맥락적으로 전통적 가치 자체만을 주입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 시사하는 전통 가치를 다루는 방식은 이같은 종래의 접근과는 그 근본 가정이 다른 것이다.

다음의 논의에서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교육에서 전통을 다루는 적절한 방향을 시사코자 한다. 그리고 그에 더해 구체적인 교육에의 적용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 교육의 접근이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대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III. 전통의 의미

교육에서 전통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과연 전통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그런데 교육의 맥락에서 전통이 거론되고 강조되는 경우를 보면 많은 개념적 혼란과 의미의 불명료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교육을 통해 전통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을 통해 전통을 계승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별 모순없이 동시에 주장되기 때문이다. 이때 각각의 맥락에서 전통이라는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매우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까지 교육적 맥락에서 이러한 전통에 대한 개념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그 의미를 명료화시키려는 노력은 크게 하지 않은 것 같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전통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전통이 포함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절에서는 우리가 교육적인 맥락에서 거론하

고 있는 전통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해 보고, 이 논문을 통해 제시하려는 가치관의 토대로서의 ‘살아있는 전통’의 의미를 밝혀 보려 한다.

그러면, 우선 전통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전통은 우리의 삶과 사고와 행동 양식 곳곳에 관련되어 있고, 스며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말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수 많은 차원의 의미의 대상과 다양한 측면들을 동시에 혹은 그것들을 유기적 전체로서 파악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전통이라는 개념은 지칭하는 대상의 수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김치를 먹는 것이 우리의 식생활 전통이다’와 같이 구체적인 실천 양식을 가리킬 때에도 전통이라는 말이 쓰이는가 하면, ‘한국의 전통’ 혹은 ‘동양의 전통’과 같이 매우 포괄적인 수준에서도 쓰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가 구체적인 실천 양식과 전통의 개념을 직결시켜 파악하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는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 양식들을 공통적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는 어떤 개념적 실체를 가정한 말이다. 둘째, 전통이라는 말은 문화 전달의 다양한 측면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곧 전통은 문화 전달의 과정을 가리키기도 하고, 전달되는 대상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며, 그것의 법칙적인 성격을 가리키기도 한다. 셋째, 특정한 실천 양식의 시간적 존재 양태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의 개념을 파악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전통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있어 ‘과거에’ 혹은 ‘과거부터’ 존재해 온 것이라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과거에 존재했었던 것 모두가 전통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그것이 현재의 삶에 이어져 왔다는 데 초점을 둔다.

이처럼 교육적 맥락에서 쓰이는 전통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명료화되어 있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그것의 계승·발전 위한 가치관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이란 일반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축적되고 계승되어 온 문화적 유형의 총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같은 사전적인 개념의 정의를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고 또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의 전통, 즉 전통적인 규범 문화를 개념화하는데 가장 유용하고 적절한 전통의 개념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되는 '문화'라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많은 경우에 '한국 문화'라 하면, '한국 전통'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전통'이라고 말하는 경우 보다는 '전통 문화'라고 두 단어를 붙여서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전통과 문화라는 말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통과 문화는 상당 부분 겹치는 의미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문화가 현재 생성되고, 소멸되어가는 모든 인간의 활동들을 포괄하는 용어인 반면에, 전통이라는 말은 보다 오래 지속된 것, 혹은 문화의 精髓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일반적인 문화와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전통'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몇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첫째, 전통은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전

통이란 이야기, 관례, 신념 등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가 단군의 건국 신화를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해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통의 의미에서 강조되는 것은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이야기를 하는 활동-의 '반복'이다. 곧 특정한 활동 혹은 실천 양식의 '지속'이나 '계속'이 전통의 중심적인 구성 요소다. 전통의 이러한 의미는 세대간 전달가능한 의미의 세계를 창조하게 한다.

그러나 모든 활동의 반복이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은 의도적이고, 의미있는 행동의 반복 혹은 지속이다. 즉, 무의식적이고, 의미없는 행동의 반복은 전통이 아니다. 특히, 전통은 공적인 의미를 갖는 행동의 반복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반복은 말 그대로 단순히 복사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고,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혹은 새롭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은 전달의 '결과'를 가리킨다. 곧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내용 혹은 결과 자체를 의미한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신념, 관습, 기술 등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의 전통은 '한국의 전통'과 같이 광범위한 대상을 지칭하기도 하고, 한국의 교육 문화나 서당 교육과 같이 좁은 의미의 대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 어떤 상징의 체계나 유형 문화재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유형 문화재의 경우에도 그것이 전통으로서 가치를 갖는 것은 그것이 구현하고 있는 경험의 의미나 소위 그 정신에 있으므로, 결국 '결과로서의 전통'에서 중요한 것은

9) 아래의 전통의 개념 분석에 관해서는 Kim, Young Sook(1986), "A 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Tradition and Its Significance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Ed. D. Dissertation. 참조.

그것에 담겨있는 공적인 의미이며, 그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이해와 해석이다. 따라서 결과로서의 전통의 의미는 과정으로서 전통의 의미와 분리될 수 없다. 사실, 전통의 의미를 찾음에 있어서 과정이나 결과는 개념상 구분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전통이라는 유기적인 개념적 실체의 다른 측면들일 뿐이다.

셋째, 전통이 갖는 또다른 의미는 不文法 혹은 ‘관습법의 효력을 갖는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관례나 실천 양식’을 뜻한다. 곧 전통이 법칙 혹은 규칙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과 관련된 의미다. 이러한 의미는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전통이 ‘매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가리켜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묻지 않게 된다. 우리의 수많은 활동들은 이러한 의미의 전통에 따른 것일 것이다.

넷째, 전통은 또한 역동적 체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위에서 살펴본 전통의 여러 측면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개념적 실체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전달된다. 곧 전통은 움직이고, 변화하는 실체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교육을 통해 계승하고 살려가야 할 전통은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변함없는 체제나 전달의 결과물이 아니라, 역동적 실체로서 ‘살아있는 전통’이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올바르게 실천되고 교육되지 않으면 죽어버린다. 곧 이러한 살아있는 전통은 적절한 전달의 과정과 그것의 내용과 산물에 대한 적절한 이해 그리고 적절한 전달의 방

법을 통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맥킨타이어는 이러한 ‘살아있는 전통’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10)</sup> “전통은 그것이 살아있는 것일 때, 연속되는 갈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살아있는 전통은 역사적으로 확장되고, 사회적으로 구현된 논의이며, 그 논의는 정확하게 그 전통을 구성하는 쉼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전통 내에서 선의 추구는 때로는 많은 세대를 통해 확장된다.” 맥킨타이어는 이러한 전통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은 적절한 덕목의 실천이라고 한다. 반면에 적절한 덕목 실천의 결핍은 전통을 붕괴시킨다고 한다. 살아있는 전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로부터 도출된 어떤 특성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대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살아있는 전통’의 개념은 우리 가치관의 토대로서 자리잡고 있는 규범적 전통을 이해 하는데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문화 전달의 과정 자체와 그 결과 및 법칙적 성격을 포괄하는 역동적 체제로서의 전통은 우리의 삶의 과정과 사회적 실천 속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평가한다. 곧 그것은 우리 가치 체계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치관 교육이 적절하고 실효성있는 것이 되려면 바로 이 살아있는 전통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또 전통이 올바르게 계승,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살아있는 전통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전통과 가치관 교육(덕목 교육)은 상호의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전통의 개념을 분석해 보았다. 전통

10) A. MacIntyre(1984), *After Virtue*, Indiana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참조.

단절의 극복을 위해서는 이같은 올바른 전통의 개념을 토대로 가치관 교육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에서 전통이 강조되지 않은 점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일부 시도되었다 할지라도 상당히 잘못된 접근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의 민요, 전통 사상, 전통 문화, 민속 놀이 등이 가르쳐져 왔지만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실제 삶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왜곡되어 있어서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통 교육의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서구적인 가치들 및 삶의 양식들과 부딪치고 섞여지면 말 그대로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그래서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한 가치관 교육은 단순히 전통의 강조라는 평면적이고 量的인 접근이 아니라, 전통 자체를 우리의 ‘삶의 통일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청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앞 절에서 분석한 ‘살아있는 전통’의 개념과 일관성있게 가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IV. 전통의 맥락과 이야기적 틀

맥킨타이어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덕목이 어떻게 전통과 관련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sup>11)</sup>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전통적인 가치들 즉, 도덕적인 덕들에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telos)을 제공하는 특성을 가진 하나의 전체로

서,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각 인간의 삶을 그려보는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한 인간의 삶은 일련의 개별적인 행위들과 일화들의 집합 이상의 것이다.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통일성을 가진 것으로,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인간의 행동을 脫脈絡的이고 原子論的으로 파악하는 일단의 현대 윤리학이나 사회학 및 철학<sup>12)</sup>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인간의 행위, 가치, 덕 등을 한 인간의 삶의 통일성과 나아가서는 그가 속한 전통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려는 이론적 시도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덕 혹은 가치의 통일성은 통일된 삶의 한 특징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삶은 전체로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통일성은 곧 그 삶을 살아가는 주체인 自我의 統一性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의 통일성은 시작에서 중간을 거쳐 끝에 이르는 이야기로서, 생명의 탄생에서 죽음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적 통일성’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인간 행위와 자아에 관한 올바른 개념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맥킨타이어의 설명을 들어보자.

하나의 동일한 인간 행동의 부분이 여러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올바르게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것은 철학자들에게나 일반인들에게나 개념적인 상투어가 되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땅을 파고 있다’, ‘정원을 손질하고 있다’, ‘운동을 하고 있다’, ‘겨울을 준비 하고 있다’ 또는 ‘그의 부인을 즐겁게 하고 있다’라는 대답 들은 동등하게 진실이고 적절성이 있는 것이다. 이 대답들 중

11) MacIntyre, *ibid.*

12) 그것은 구체적으로 윤리학에서 emotivism, 행동주의 사회학, 분석철학 등을 지칭한다.

일부는 행위자의 意圖를 부각시킨 것이고, 다른 것들은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들을 부각시킨 것인데, 이 의도 하지 않은 결과들 중 어떤 것은 행위자가 의식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즉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점은, 하나의 주어진 행동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거나 설명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이든,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상이하고 올바른 대답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선행하는 대답을 논리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의 제일차적인 의도가 겨울이 되기 전에 정원을 손질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운동을 하고 부인을 기쁘게 한 것은 단지 우연적인 경우일 뿐이라면, 우리는 설명되어야 할 한가지 형태의 행동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행위자의 제일차적인 의도가 운동을 함으로써 그 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설명되어야 할 매우 다른 형태의 행동을 갖는 것이며 우리는 그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

첫번째 경우에 그 일화는 家事의 年例的인 週期에 위치 해 있으며, 그 행동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일화가 되는 배경의 특이한 이야기적 역사와 함께 가정-과-정원이라는 배경의 특별한 형태를 가정하는 한가지 의도를 구현한다. 두번째의 일화는 비록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매우 다른 사회적 배경인 결혼의 이야기적 역사에 위치해 있다. 즉, 우리는 의도와 독립적으로 행동의 성격을 규정할 수 없으며, 또 우리는 행위자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배경과 독립적으로 그 의도들의 성격을 규정할 수 없다.<sup>13)</sup>

이처럼, 우리가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삶의 이야기와 그가 속해 있는 전통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의 특정한 행동을 두 종류의 맥락을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들추어냄으로써 확인한다. 먼저, 행위자의 의도를 그의 역사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시간적인 순서에 위치시킨다. 또한, 그것이 속한 배경의 역사 속에 그것의 역할에 비추어 위치시킨다. 맥킨타이어는 이 점에서 ‘이야기적 역사 *narrative history*’는 인간 행위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장르라고 한다. 예컨대, ‘발언 행위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의 자리를 찾음으로써 이해가 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할 때 그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려면 위에서 말한 개인사와 그 개인이 속한 문화 전통의 역사에서 적절한 맥락과 연관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적 틀이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것은 우리 모두 자신의 삶에서 이야기를 엮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며, 우리가 실천하는 이야기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 *narrative*란 단지 순전히 꾸며낸 허구적인 이야기라기 보다는 ‘이야기적 틀’을 가지는 이해의 양식, 곧 시작이 있고, 전개 혹은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구성하여 어떤 행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의 행위는 항상 가능한 역사 속에서 하나의 일화다. 그리고 개인의 삶의 통일성은 하나의 단일한 삶이 구현하는 이야기적 통일성이다. 도덕적 삶과 善의 追求는 이 통일성을 최선으

13) MacIntyre, *Ibid*, p. 206.

로 실현하려는 노력이다.

그런데 나는 결코 ‘개인의 자격’으로 선을 추구하거나 덕목을 실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싸르뜨르와 같은 실존주의자들은 개인으로서 내가 덕을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인 나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과거로부터 다양한 빛, 유산, 의무 등을 물려받았다. 이것들은 나의 삶에 주어진 것으로서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정체성의 소유와 사회적 정체성의 소유는 일치한다. 우리 시대의 한 가지 실천 양식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그 실천 양식을 현재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한 전통의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긴 여러 전통들의 맥락에 놓여 있고, 그것에 비추어 이해가능하다.

이상으로 인간 삶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을 통해 행위와 덕목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 맥킨타이어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행위,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우리의 가치 체계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적 통일성을 갖는 삶의 역사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의 역사와 전통의 맥락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목적론적 윤리설의 이론적 구조를 토대로 설득력있게 전개시킨 인간 행위와 삶을 통일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입장이다. 이는, 맥킨타이어에 의하면, 서양의 전통적인 덕의 倫理가 가정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이다.

덕의 윤리와 일관된 이러한 입장은 또한 우리

의 전통 단절의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도 새로운 시사를 준다. 우선, 이는 전통적인 가치나 교육 내용들이 탈맥락적으로, 개별적인 것들로서 제시되고 교육되어서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기르려고 하는 덕목이나 가치들은 그것의 배경과 분리되어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 구체적인 시사점은 맥킨타이어가 인간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의 통일성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한 ‘이야기적 틀’이 도덕 교육의 접근으로서 추구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 자신이, 앞에서 보았다시피 어린이의 덕목 교육에 있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적 틀을 구체적인 도덕적 담론의 형태로 적용시키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사람은 보키(Daniel Vokey)다.<sup>14)</sup>

보키는 “이야기와 道德的 談論”이라는 글에서 이야기는 도덕적 관점과 생생한 경험의 특질 간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정확하게 도덕적 담론에 공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덕적 관점 곧 우리의 가치 입장은 구체적이고 질적인 경험의 개인사에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그것은 그같은 개인사의 맥락에 위치시킬 때 완전하게 감정되고 적절히 비판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도덕적 행위와 반성에 깔려있는 의도는 진정한 사물의 본성과 일치하는 인간 행위의 규범과 우선순위들을 확립함으로써 인간 삶의 질을 유지하고 고양시키려는 것이라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하나의 도덕적 판단은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인간 삶의 질’에 따라 만족스럽거나 불만

14) D. Vokey(1992), “Narrative and Moral Discourse”,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ed.), *Philosophy of Education* 1991, Illinois State University, pp. 264~275.

족스럽다고 간주된다. 달리 말하여, 하나의 특정한 도덕적 판단은 주어진 상황 하에서 인간의 삶이 가장 심오하게 실현되는 방식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에 공헌한다고 이해될 때 성공한다. 그런데 도덕적 관점들을 비교하는 것은 ‘구체적인 질적인 경험과 판단, 원리, 헌신과의 관계’를 감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도덕적 관점을 이해하려면, 그것의 가정들에 친숙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관점을 選好하게 한 구체적인 經驗의 個人史에도 친숙해져야 한다.

이러한 보키의 입장은 도덕성에 대한 보편주의적, 형식주의적 접근은 ‘보다 상황에 밀착되고 실질적인 접근’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적 틀이 도덕적 담론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그는 도덕적 담론 곧 도덕 교육에 대한 접근으로서 ‘이야기적 틀’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적 틀 *narrative*’이란 무엇인가? (영어의 *narrative*는 그냥 ‘해설’, ‘이야기’ 혹은 ‘이야기체’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이 도덕적 실체를 인식하고 전달하는 방법적 틀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야기적 틀’이라고 쓰고자 한다.) 그것은 이야기 자체와 이야기를 말하는 것 *story-telling*을 동시에 지칭한다. 양자는 세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특별한 방식의 결과이며, 과정이다. 이와 대비되는 접근 방식은 범례적 접근 *paradigmatic orientation to meaning-making*인데, 과학적 추론과 연역적 접근이 그에 해당된다. 이 접근은 주로 추상적인 개념이나 보편화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이야기적 접근은 구체적 맥락의 우연성 속에서 인간의 신념과 동기, 이성, 의도 등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둔다. 이 접근은 우리가 파악하려는 대상 또는 사건들은 상황에 밀착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어떤 시간적 계열과 한정된 장소라는 독특한 위치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본다.

이같은 이야기적 틀이 서로 다른 도덕적 관점을 감정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첫째, 이야기적 틀은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매개하는 능력을 가진다. 특히, 이는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이야기적 틀은 인간 경험의 질적이거나 정의적인 차원을 불러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이는 판단 뒤에 있는 감정과 지각을 드러냄에 의해 다른 도덕적 관점에 대한 감정이입적 평가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야기적 틀은 이같은 특징을 통해서 특정 상황과 역사 속에서 다른 도덕적 전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鑑定하게 해준다.

보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야기적 틀이 그 성격상 논쟁의 결말을 볼 수 없는 현대의 도덕적 논쟁들 중 서로 상반되는 도덕적 관점을 평가함에 있어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실제 상황에서 모범적인 개인들의 도덕적 개선(승리)를 묘사함에 있어서 이야기들은 ‘말 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의 힘을 공유한다. 이야기적 틀은 어떤 도덕적 원리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게 될 도덕적 행위의 힘과 영향력을 구체화시켜서 보여주고 그것에 감정이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덕적 헌신과 원리들이 구체적 맥락에서의 결정과 행위에 대해 갖는 함축들을 예시함으로써 도덕적 상황에 대한 대안적 반응의 평가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반응이 파생되어 나온 서로 상반되는 도덕적 관점들도 평가하게 해준다. 곧 이야기적 틀은 어떤 도덕적 전제에 함축되어 있는 것들에 헌신할 때 예상되

는 삶의 질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거부하거나 지지하게 해준다. 곧 이야기적 틀은 우리의 구체적인 인간 실존의 한계와 가능성에 더 충실한 도덕적 전제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돕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도덕적 관점을 수용하거나 거부함에 있어서 이야기적 틀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사람은 백킨타이어이다. 도덕적 맥락에서 ‘인식론적 위기’는 특정한 전통의 자원들이 반복적으로 만족스러운 도덕적 판단을 제공하는데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삶의 양식을 끌어내는데 불충분할 때 일어난다. 이야기적 틀은 이러한 인식론적 위기를 해소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전통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일단의 가정들이 이전의 관점과 연속선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것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해가능하고 그럴듯한 설득력있는 이야기의 구성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도덕적 전통은 더 나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정도만큼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나은 이야기란 그럴듯하고 일관성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것은 일단의 근본적인 도덕적 헌신들, 원리들 그리고 선례들과 관련된 하나의 특정한 세계관이 만족스럽게 갈등을 해소하고 다른 전통의 목표들에 부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까지 가치 교육에 있어서 전통의 맥락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야기적 틀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특히,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전통을 가르친다고 해도 우리 삶의 통일성과 관련을 맺지 못한 채 파편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이러한 접근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덕 교육에서 이야기가 제시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勸善懲惡을 주제로 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린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도록 했고, 플라톤이 「국가론」의 ‘초기 교육’에서 이야기를 통해 국가의 가치와 이상을 가르치도록 제안한 것<sup>15)</sup>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때 이야기의 기능은 주로 그것이 담고있는 도덕적 메시지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거나 주인공의 도덕적 모범을 본받도록 하는 데서 찾았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이야기적 틀이 갖는 중요한 기능들이 전통적인 도덕 교육에서는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V. 교육에의 적용

이 절에서는 앞의 논의에서 검토된 ‘살아있는 전통’의 개념과 가치관 교육의 접근으로서의 이야기적 틀을 구체적인 교육의 맥락에 적용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현재 초·중·고교의 도덕·윤리·사회·국사과를 통해 지도되고 있는 전통 문화 혹은 전통 가치의 내용과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도덕과에서는 전통적인 덕목과 규범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가정·이웃 생활’이라는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민학교의 가정·이웃 생활 영역에서는 예절, 가정애, 관용, 애교·애향 등의 주요 지도 요소를 축으로 학년별로 관련 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의 도덕과에서는 가정·이웃 생활 영역에서 효도, 조상 숭배의 전통, 전통적 가정 윤리, 이웃간의 상부 상조 전통, 전통적 도덕과 예절의 기본 정신, 전통 의례 등을 다

15) 조난심(1988), “플라톤의 「국가」와 교육”, 서울대학교 교육학연구회(편), 교육이론, 참조.

루고 있다. 고등학교 국민윤리과에서는 동양 윤리의 전통을 다루고 있다. 이를 보면, 현재의 (그리고 개정된 제 6차 교육과정도 마찬가지) 도덕과 및 국민윤리과에서는 전통적인 덕목과 규범들 그리고 그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들이 상당 부분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문화나 가치는 도덕·윤리과 뿐만 아니라, 사회과나 국사과를 통해서도 지도된다. 국민학교 사회과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 특히, 전통적인 생활 풍습, 문화재, 종교, 예술 등과 같은 민족의 生活史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국사과’<sup>16)</sup>를 통해 우리 민족의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는 역사를 政治史를 중심으로 다루되,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특수성 이해, 전통적인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과 존중,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자세 등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 고등학교 국사과에서는 우리 민족의 문화사, 사회 경제사 및 민족 문화의 특성을 세계사와 관련시켜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국사과의 교육 내용을 보면,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실과 지식을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나 가치들을 가르치는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사과에서 가르치는 방식은 주로 역사학적 접근에 토대를 두어야 하므로, 이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 교육의 접근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를 위해서는 도덕·국민윤리과에서 전통적 가치를 다루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도덕·국민윤리과에서 전통적 가치를 다루는 접근 방식은 일반

적인 다른 도덕적 가치들을 다루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학교 저학년에서는 주로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나 설명을 통해 제시하고, 교사가 직접 모범을 보임으로써 내면화하도록 하고 있다. 고학년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 방법과 함께 가르치려는 가치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관해 토의해봄으로써 도덕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전통 가치들을 해설하는 방식이 주가 되고, 관련된 문제들을 토론, 판단하게 하는 접근 방법도 활용된다. 고등학교 윤리과에서는 동양 윤리의 전통을 윤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설명하는 것이 주가 된다.

이러한 현재의 도덕·국민윤리과의 전통 가치에 대한 접근 방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통의 단절을 극복하고, 전통 가치와 현대 가치의 조화를 이룬 통합적인 가치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전통 가치의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천되는 전통의 ‘맥락’을 불러일으켜 그 속에서 살아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전통 가치의 맥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의 접근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부족하다. 둘째, 전통 가치가 오늘날 학생들의 삶에 의미있는 것이 되려면, 동시에 배우고 있는 현대적인 가치들과 일관된 혹은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다른 원천에서 도출되는 가치들을 적절히 비교, 조화, 통합해낼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16) 개정된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국사과가 독립된 과목이 아니고,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제의 접근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전통 가치가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려면, 그것은 실천할 주체 곧 학생들의 삶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곧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학생들의 삶에 전통 가치가 통합되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이라는 시각에서 전통 가치를 재해석하고 융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전통 가치를 다루되 그것이 마치 맥락과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다루고, 더 나아가 도덕 교육 전반을 학생들의 삶의 통일체와 관련시켜 보지 않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도덕 교육의 접근들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으로 인간 삶의 통일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야기적 틀’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야기에 의한 도덕 교육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법은 아니다.<sup>17)</sup> 현재 우리의 도덕 교육에서도 이야기를 통한 접근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학교에서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도덕 교육을 하는 접근은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읽기 자료인 「생활의 길잡이」에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도덕적인 모범’을 제시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제시해주는 것은 예로부터 중요한 도덕 교육의 한 방법이었다. 例話란 말 그대로 ‘실례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이다. 예화를 통한

도덕 교육은 우리의 전통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조선 시대 500년간 교과서로 사용되어 오던 〈小學〉을 보면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소학〉의 구성은 크게 內篇과 外篇으로 나누어지고 內편에 속하는 立教, 明倫, 敬身은 각각 공부에 뜻을 두고, 윤리적 도리를 밝히며, 몸을 수양하는 원리를 성현의 가르침과 典據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外편은 嘉言과 善行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부분은 漢代 이후 송대에 이르는 사이에 있었던 어진 사람들의 교훈이 되는 말과 미쁜 행실을 수록한 것이다. 內편에 속하는 稽古는 한나라 이전 고대 중국의 성현들의 언행을 상고하여 입교, 명륜, 경신의 실체를 입증한 것이다. 〈소학〉의 계교편과 外편에 수록된 선행 사례들 즉, 명륜을 실증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던 성현들의 언행이 바로 도덕적 예화다.

이러한 〈소학〉이 도덕 교육의 중심적인 교과서였던 우리 전통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도덕 교과서는 예화 교과서로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생활의 길잡이」 개발 취지에 나타난 것을 보면 현재의 예화 교과서적인 접근은 이미 ‘이야기적 틀’을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예화 교과서에 제시된 이야기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야기적 틀과는 교육적 의미가 다르다. 예화 교과서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본받을만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시하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적 틀은

17)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도덕 교육을 하는 것은 오래되고 보편적인 전통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에 의한 도덕 교육의 접근은 오늘날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B.Tappan & L.M. Brown(1989), "Stories Told and Lessons Learned : Toward Narrative Approach to Mor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59, No.2, May, pp. 182~205. 참조.

18) 문교부(편)(1990),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4~2, pp. 27~28.

단지 모범 사례로서 이야기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의 배경 및 그것과 통일체로서의 인간의 삶과의 관련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전통 가치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불러일으키고, 또 동시에 통일체로서의 한 개인의 삶과 전통적 가치와의 유기적인 관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대안적인 가치관 교육의 접근 방향을 구안한다면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접근 방법의 제시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치관 교육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안해 본다.)

1. 우리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살아있는 전통’이라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발굴하고, 선정한다. 역사적, 사회적 주제들 및 문화적이고 가치와 관련된 주제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2. 선정된 주제 혹은 내용(덕목)들을 ‘이야기적 틀’로 구성한다. 이 때 이야기들은 허구적인 것이어야 한다거나 새로 창작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역사적 자료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거나 기존의 작품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① 개별적인 덕목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한다.

② 덕목들간 혹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 간의 통합을 지향하는 이야기를 구성한다.

③ 학생들의 個人史 속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갖는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3. 이야기적 틀을 갖춘 전통 가치들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